

웃음으로 일등한 고양이가 전하는 성장 메시지

새로 나온 책

정범종 작가 세 번째 동화책 '일등 한 막내 고양이' 출간



길고양이 막내 노랑이의 따뜻한 눈빛과 웃음이 어린이 독자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넨다. 광주에서 글을 쓰는 작가 정범종이 장편 동화 '일등 한 막내 고양이' (리틀씨엔투키·그림 벼레)를 펴냈다. 아기 고양이 노랑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번 작품은 '경쟁'이 아닌 '함께 웃는 것'이 진정한 일등임을 전하며, 유년의 높낮이에서 삶의 의미를 섬세하게 일러준다.

동화는 삼색 길고양이 엄마가 낳은 세 마리 아기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된다. 얼룩이, 줄무늬, 그리고 막내 노랑이. 얼룩이와 줄무늬는 누구보다 빨리 눈을 뜨고 일어서며 일등을 다투지만, 노랑이는 느긋하다. 눈을 뜨는 것도, 걷는 것도 맨 나중. 그런 노랑이는 결국 '웃는 데서 일등'을 한다.

작가는 "경쟁에서의 일등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며 "노랑이는 남과 싸워서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데서 자기만의 일등을 만들어 낸다"고 밝혔다.

책 제목만 보면 경쟁을 통한 우월함을 떠올리기 쉽지만, 작가는 이 부분에 반어를 담았다.

그는 "제목만 보면 '아, 뭔가 잘해서 일등했구나' 싶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경쟁이 아니라 함께 웃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바탕에는 작가와 실제 고양이 '노랑이'와의 인연이 깔려 있다. 2009년 처음 만난 아기 고양이 노랑이와 17년간 마음을 나누며 지내온 기억이 동화의 시작점이 됐다.

작가는 "노랑이와 나는 눈빛으로 대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 배우고

마음껏 띄우는 삶의 여정 담아내



정범종 작가



동화 '일등한 막내 고양이' 표지 일러스트

나눴다"며 "글이 잘 안 써져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면 노랑이가 눈빛으로 '웃어. 그러면 눈이 더 예뻐져' 하고 말하듯 다가오곤 했다"고 회상했다.

'일등 한 막내 고양이'는 '두근두근 첫 책장' 시리즈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동화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노랑이처럼 조금씩이라도 자기만의 빛을 찾아가고 응원하는 책이다.

작가는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밭'로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을 수상하며 동화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동화 '큰일 한 생쥐'에서는 미약한 존재

도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전했다.

원래 소설과 희곡을 써오던 그는 "작은 생명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꽃을 기르거나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다 보니 자연스레 동화를 쓰게 됐다. 아이들에게 생명과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 동화를 계속 써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범종 작가는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대 경영대를 졸업했으며,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제주4·3평화문학상, 광주시립극단 희곡상을 수상했다. 동화 외에도 소설과 희곡 분야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우리는 늘 어떤 노래와 함께였다 =장유정 저자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책은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 존재했던 대중음악의 여정을 따라간다. 동요, 민요, 독립운동가요, 해방 이후의 대중가요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과 이야기들을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발굴하고 기록했다. 저자의 깊은 지식과 따뜻한 시선이 더해진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금 우리 삶과도 연결돼 있으며, '살아 있는 음악의 역사'가 된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독자들이 글 속에 등장하는 희곡 음원을 QR 코드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와 나무·1만9천800원



▲법정 밖의 이름들=서혜진 저자

'법정 밖의 이름들'은 고은, 이운택, 안희정, 텔레그램 N번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에서 피해자의 옆에 섰던 변호사 서혜진의 첫 책이다. 하지만 단순한 판결 해설서는 아니다. 법의 언어로는 닿지 않았던 감정과 기록되지 않은 이름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의 그리고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될 변화들이 무엇인지 말한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해 온 고통에 질문한다. 사람이 바뀌면 법률도 바뀐다. 이 책은 그 시점이 고통에 응답하는 일이라는 걸 증명한다. /흐름출판·1만8천원



▲젊음의 나라=손원평 저자

'젊음의 나라'는 인구 노령화가 현실이 된 미래 한국, 절대다수의 노인과 소수 그룹인 청년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다.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흥미롭게 그려진다. 특히 이 책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세대 간의 대립뿐 아니라, 가족간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가족이 무엇인지를 묻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짚으며,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 미래 사회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폴라·1만9천800원



▲사과 남남=송선옥 저자

자기를 인식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아기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 그림책 '사과 남남'이 출간됐다. 마음속 크고 작은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송선옥의 새로운 아기 그림책이다. 사과 한 알을 혼자 다 먹고 싶어 하던 애플레가 자기 몫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냈다. 오롯이 자기만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해 초조함과 실망을 거쳐 만족감에 이르는 감정의 흐름은 아기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양육자와 아기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돕는다. 또 이 책은 위치 개념, 감각 표현, '있다, 없다'의 인지 구조 등 아기 발달에 꼭 맞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창비·1만5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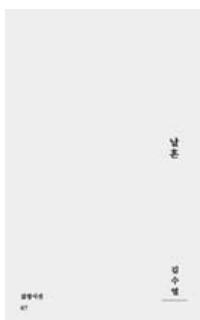
김수열 시인 '날흔' 제7회 조태일문학상 수상

제주 4·3 상흔 중심 곳의 시학 통해

문학·역사 새로운 가능성 보여줘

제주 출신 김수열(사진) 시인이 제7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날흔' (살창판)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6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조태일문학상은 어두운 시대에 맞서 자유 정신과 순정한 자연 감성을 노래한 죽형 조태일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곡성군과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조태일 문학의 현재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김수열 시인의 '날흔'은 제주 4·3의 상흔을 중심으로 제주의 역사와 공동체적 삶, 그리

고 국제적 연대의 감정까지 포괄한다.

특히 마당극 운동의 경험을 녹여낸 '굿시' 형식의 시편들은 제주의 설화와 사회문제를 장쾌한 호흡으로 풀어낸다. 시 '십사일반'과 '할마님아 설문대할마님아'는 제2공화국 건설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면서도, 제주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설화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심사위원회는 "'날흔'은 굿의 시학을 통해 망각된 역사와 존재를 불러내며, 조태일 문학의 현재형이자 문학과 역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열 시인은 "'날흔'은 죽은 지 삼 년이

안 된 넋을 이르는 제춧말"이라며 "이번 수상이 어머니가 저승세계로 떠나시며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냈다. 조태일 시인은 제게 큰 산이며 남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1982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주요 시집으로 '빙의', '호모 마스쿠스', '어디에 선들 어쩌랴' 등이 있다. 4·3시선집 '꽃 진 자리'와 산문집 '첫마파람 부는 날이면' 등을 펴냈으며, 오장환문학상과 신석정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심사에는 박두근, 이철야, 장은영(예심), 고형렬, 김해자, 최진석(본심) 등이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천만원, 그리고 조태일 시인의 대표작 '국토서시'를 새긴 고 정병래 작가의 전작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